

'20년도 인문정책연구 공모과제 제안요청서(RFP)

- 202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과제 공모는 아래에 제시된 주제 중 하나를 택하되, 연구 제목을 구체화하기 바람

제안요청서 (RFP)	
주 제 1	세계질서 변화와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 인문학적 접근
주제 배경	<p>○ 1990년대 이후 형성된 탈냉전과 세계화를 축으로 하는 세계질서가 중대한 변화를 향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감염병 차단을 이유로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교류를 중단하는 등 과거 민족국가 시대의 양상으로 회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정권의 등장은 세계질서 변화의 또 하나의 요인이다. 미국은 탈냉전 이후 구축한 유일 패권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국가적 대결의 정치를 전면화하고 있다. 전통적 고립주의도, 팽창적 제국주의도 아닌, 매우 예외적인 형태의 미국 외교노선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민족국가 시대의 외교 원리로 되돌아가고 있다. 유럽연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세계화의 대표적 모델로서 유럽연합은 최근 영국의 탈퇴결정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민족국가의 이익 원리가 국가연합의 원리에 맞서는 상황이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 또한 세계 질서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패권전략에 맞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리 아래에서 미국과 대결하고 있다. 홍콩의 정치적 위기, 대만과의 정치적 갈등은 그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대결적 상황은 동아시아 정치역학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은 곧 한국이 마주하고 풀어야 할 심대한 외교적 의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포함해, 한국의 미래에 대한 근원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인문학적 사유와 상상이 필요해 보인다.</p>
주요 연구내용	<p>○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한 인문학적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감염병 위기, 미국 외교 노선의 변화, 브렉시트, 미중 대결정치 가속화 등의 국제적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인식 속에서 세계 질서의 재편의 의미와 방향을 인문학적 시각으로 성찰하는 일이 필요하다.

제안요청서 (RFP)

	<p>○ 세계질서의 역학과 동아시아 - 인문학적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새로운 외교노선은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잠재적인 군사적 대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두 나라의 패권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점에서 동아시아는 재편되고 있는 세계 질서 역학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여기서, 세계 질서의 변화를 동아시아의 차원에서 인문학적으로 사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p>○ 세계질서의 재편과 한국 - 인문학적 통찰과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질서의 변화 역학과 미중 패권 정치가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현재적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중국과의 교역, 북한과의 평화정착과 통일,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 등 중층적으로 연관된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풀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문학적 통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	--

주 제 2	팬데믹(pandemic)과 인문학
주제 배경	<p>○ 감염병의 전 세계 확산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의 친밀한 접촉과 국경 없는 세계화가 대세였던 시기는 이제 비대면의 일상화와 국가 간 경계가 강화되는 변화의 세기를 맞게 되었다. 비대면으로 인류 문화의 폐쇄성이 강화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비현실적 연결의 보편화는 가속화되는 상반되는 상황에 처했다. 팬데믹 시대를 맞아 개인과 사회, 국가는 이제 뉴노멀이라 불리는 삶의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 이에 급격한 사회의 변화를 다양한 층위에서 진단하고, 인문학을 통한 치유와 대안적 삶의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이전과는 다르게 전개될 개인과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문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전과 다른,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는 인류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다가올 미래사회의 새로운 규범을 세우</p>

제안요청서 (RFP)

는 데 이바지할 인문학의 역할을 기대한다.

주요
연구내용

○ 감염병시대 인문학의 역할

-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감염병 시대, 급격한 사회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혼돈에 빠진 인류의 과거 삶의 방식을 성찰하고, 대안적 삶의 방식을 제시함
- 성찰적 인문학, 치유의 인문학으로 감염병 시대 인간과 자연, 사회가 공존하는 상생의 전략을 모색

○ 뉴노멀 시대의 인문정책

-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가속된 도시화, 지구화, 금융화 시대를 뒤로 하고 '거리 두기'를 전제로 한 뉴노멀 시대를 위한 미래 전망과 인문학.
- 폐쇄적 거버넌스, 디지털화, 온라인 경제 활성화, 관습의 해체로 이어질 뉴노멀 시대를 맞아 공동체를 위한 규범으로서의 인문정책 제시

○ 비대면 시대 대학 교육의 향방

- 비대면 시대 온라인 교육의 일상화로 인한 대학 교육의 본질적 변화에 대한 발전적 전망과 구체적 대안 제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비전을 모색하고, 다변화되는 디지털 매체의 활용 가능성과 비대면 교육의 현실적 수용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차세대 대학 교육을 선도함

○ 감염병의 확산과 인류의 대응

- 인류 역사에 치명적인 변곡점을 만들어냈던 감염병의 확산과 그에 대한 인류의 대응 및 극복의 과정을 검토하여 향후 도래할 사회의 인문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방안
- 도전과 응전의 세계사적 관점에서 인류세의 새로운 생태학 모색